



5월 봄기운 물씬...사장실엔 투쟁열기 활활 젊은 피 32명도 동참 선언



연합뉴스 노조는 봄기운이 물씬 피어오르는 5월 들어 사장실 앞 시위를 이어갔다. 노동절에 각오를 새롭게 다진 연합뉴스 조합원 100여 명은 피켓을 손에 꼭 쥐는 채 7층 복도를 가득 채웠다.

2일 오전 9시15분께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박정찬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사장실로 직행했다. '표표히' 들어가는 박 사장의 주위로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후 조합원들은 사장실 유리문 안에 삼삼오오 모여 피켓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 피켓 구호가 현 상황과 맞지 않은 것들이 많아 새롭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였다.

하드보드지와 크레파스를 기다리는 동안 공병설 위원장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파업 '아마추어'인 사측이 얼마나 "박하고 치졸하고 악랄하게" 행동하는지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또 대화를 계속 회피해온 우유부단함을 규탄하며 "사측에 오늘까지 대화할 건지 말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1일 '솔로몬의 지혜와 하얀 동그라미 재판'이라는 글로 열렬한 지지를 받은 권영전 조합원은 "노동절 집회 주최 측이 '조중동매'와의 취재를 거부했는데 파업을 안 했으면 우리도 '연'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제야 시민들께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집회 참가 소감을

전했다.

조합원들이 끼리끼리 모여 피켓을 제작하는 동안 2011년 말 입사자인 '33기'들이 말끔한 모습으로 사령장을 받고 시위장소로 와 선배들에게 인사했다.

33기 대표 박동주 조합원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연합뉴스의 기자가 됐다"며 "연합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자가 되기 위해 33기 32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안승섭 조합원은 "많은 고민 끝에 참여 결정을 내려준 33기에 고맙다"며 "우리가 파업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연합뉴스를 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와 함께 수습들이 떠나고 각자 제작한 피켓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임화섭 조합원은 '박정찬을 점지해준 삼신할매 자폭하라!'는 구호로 박수를 받고서 '삼신할매 배후조종 옥황상제 각성하라!'는 다음 구호로 더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노재현 조합원의 '싫다 박정찬!'과 임은진 조합원을 필두로 한 '쫄!' 시리즈도 인기를 끌었다.

피켓 발표의 대미는 조성흠 조합원이 장식했다. 손과 옷에 물감을 문혀가며 써내려간 구호 '박정찬이 사장이면 조성흠도 특종기자'는 많은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노조, 메이데이 집회서 투쟁의지 다져

'밖'이 아닌 '속'에서 함께 걸었다. 노동자의 날이었던 5월1일. 그동안은 대오 밖에서 집회 취재만 해오던 언론인들도 이날만큼은 노동자들의 행렬 속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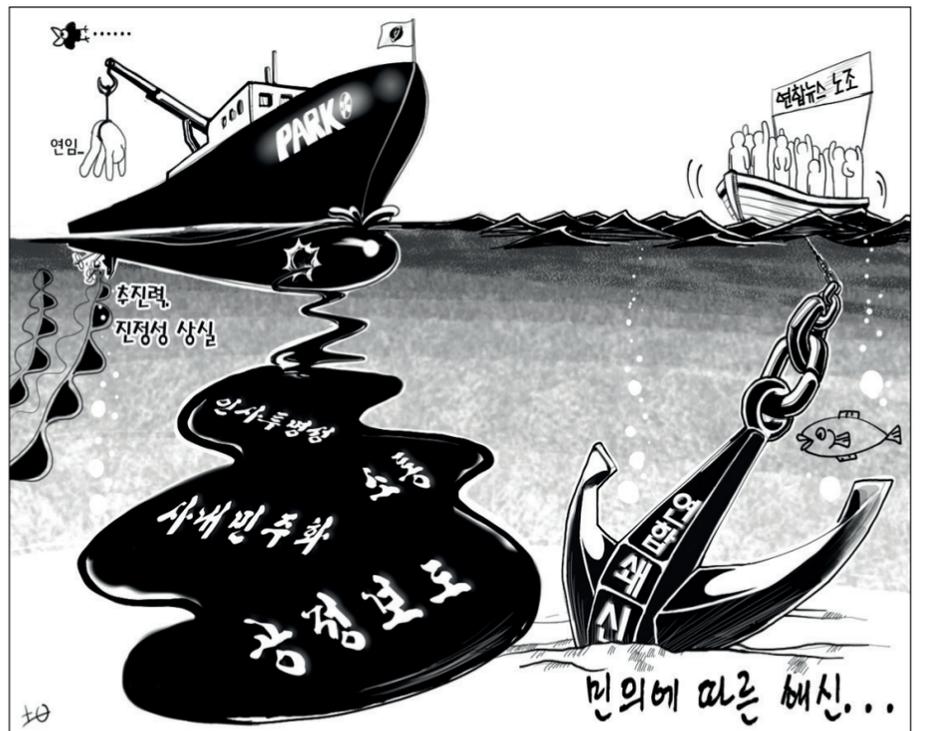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22주년 세계노동절(May Day) 기념대회'에 1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참했다. 연합뉴스 조합원 30여 명을 포함해 국민일보, 서울신문, KBS, SBS, YTN 등 다수의 언론사 노조도 함께했다. 오후 2시30분 푹푹 찌는 듯한 날씨 속에서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거대한 행렬은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을 찍고 서울중앙우체국을 돌아서 약 한 시간만에 서울광장으로 입성했다.

이날 집회는 언론사 파업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강승철 사무총장은 "MB정권의 언론장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MBC, KBS, YTN,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다"며 사상 초유의 언론사 공동투쟁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

2면에 계속

노보만평

김토일



솔로몬의 지혜와 연합뉴스 파업

연합뉴스 파업 상황과 관련해 ‘솔로몬의 지혜’ 논의가 노조 게시판에 달렸다.

솔로몬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일화로, 최근 간부급 선배들이 노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양보해 ‘진짜엄마’임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화는 한 아기를 두고 가짜·진짜 엄마가 양팔을 두고 잡아당기는데, 진짜 엄마는 계속 그러면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먼저 손을 놓게 되고, 이를 본 솔로몬 왕이 먼저 손을 놓은 엄마를 진짜 엄마로 판단했다는 줄거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훈상 조합원은 ‘솔로몬의 지혜’란 게시판 글에서 먼저 사실 관계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강 조합원이 확인 결과 구약성경 열왕기상에서 두 엄마가 한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왕이 아이를 칼로 잘라 두 엄마에게 나눠줘라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아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숭고한 모성의 원형’이 아닌 ‘정의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강 조합원은 앞선 일화로 돌아가서 아이의 손을 놓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도록 판결할 ‘솔로몬 왕’이 없다면 선배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현재 노조가 진짜 엄마임을 자처하고 우는 아이(회사)를 살리려고 팔을 놓게 되면 그 아이는 그냥 가짜 엄마(박정찬

사장)의 차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강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진짜 엄마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잠이 안 오네요”라며 진짜 엄마로서 모성을 발휘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권영전 조합원은 ‘솔로몬의 재판과 하얀 동그라미 재판’이란 글에서 강 조합원의 논의를 더 확대했다.

권 조합원은 솔로몬의 지혜가 ‘옳은 것을 가려 내는 머리’라며 ‘정의의 실현’이란 강 조합원의 해석에 동의했다.

나아가 솔로몬 일화가 엄마들의 아이 팔 잡아당기기로 잘못 이해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하얀 동그라미’란 희곡작품의 내용을 솔로몬 일화로 착각해서란다.

이 작품에서 총독 부인과 하녀가 한 아이를 두고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재판관은 ‘바닥에 하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양쪽에서 아기를 잡아당겨라. 자기 쪽으로 아기를 끌어당긴 쪽이 아기를 얻는다’고 명했다.

총독부인은 기를 쓰고 아기를 잡아당기지만, 하녀는 번번이 아기의 팔을 놓친다. 이를 보고 재판관은 그 아기의 엄마를 하녀로 판정한다는 내용이다.

권 조합원은 “한국 역사 속의 낙하산 사장 중 합법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장은 도대체 누가 있느냐”

며 박 사장이 합법적으로 임명됐다고 하지만 ‘총독 부인’만큼의 정의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첫 제안을 받을 것을 강요하다 이젠 철회했지만, 노조는 파국을 막고자 ‘하얀 동그라미 저편으로 아기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번번이 양보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권 조합원은 “누가 연합뉴스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정의입니까”라며 박 사장이 진짜 엄마일 수가 없음을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쟁대위에 가졌던 나약함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글”이라며 권 조합원의 글에 공감했다.

☞ 1면에 이어

회사에서 “언론노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서 “승리를 위해 의리로 연대하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고 언론파업에 힘을 실었다.

집회는 ‘공정언론 쟁취 투쟁을 전국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벌여내어 승리로 이끌자’는 내용이 포함된 대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뜨거운 햇살이 연방 머리 위에 쬐히는 더운 날씨였지만 연합뉴스 조합원 수십 명은 서로서로 몸을 좁히고 잔디밭에 앉아 행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파업투쟁 숨은 일꾼

④ 사진팀

하루하루가 역사적 순간으로 빼곡한 연합뉴스 총파업의 현장. 그 현장을 뷰파인더 뒤에서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조합원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눈에 띄는 연합뉴스 노조 사진팀이다.

노조 사진팀은 연합뉴스의 막내급 사진기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병식(경기북부취재본부)·신준희·배정현(이상 사진부) 조합원이 공정보도 투쟁의 생생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연차로 따지면 신 조합원과 배 조합원이 후배지만 사진팀 안에서는 신준

희 ‘부장’, 배정현 ‘차장’, 임병식 ‘사원’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업무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배분하는 편이지만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팀원 모두가 매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대부분 노보 특보를 통해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이들의 취재 대상은 크게 박정찬 사장과 조합원들로 나뉜다. 투쟁에 돌입한 이후 박 사장을 찍는 심정은 사뭇 달라졌다. “뷰파인더를 통해 사장과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묘하다”고 이들은 털어놨다.

배 조합원은 “예전엔 회사 행사에 사장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용될 사진만큼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했죠. 지금은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 찍는 느낌과 비슷하달까요?”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출근저지 투쟁 때 자신을 클로즈업해 찍는 신준희 조합원에게 “필름 아깝게 왜 이렇게 많이 찍냐”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디지털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는데...(웃음) ‘열중쉬어’ 자세를 한 박 사장 손이 계속 덜덜 떨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게 기억에 남아요”라고 신 조합원은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조합원인 동시에 사진기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다 보면 다른 취재 현장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감회도 느끼게 된다.

임 조합원은 “사장실 앞 집회 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긴장하게 된다”며 “평소엔 충돌 상황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충돌이 나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배 조합원은 “요즘은 조합원들의 밝은 모습을 많이 찍는다. 마이너스 명세서 받은 사람들치고는 표정이 밝다. 찍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웃었다.

다시 못 올 찰나를 담는다는 마음으

로 신명나게 일하고 있지만 떠난 일터에 대한 아쉬움도 진하다.

파업 돌입 전날 A매치 축구경기를 취재했던 신 조합원은 회사에 복귀해 장비를 반납해야 했던 일이 서운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는 “처음으로 ‘여기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맞나’ 싶었다”며 그 날의 심경을 되짚었다.

배 조합원도 “핵안보정상회의 때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산기지로 입국했는데 나도 취재 명단에 있었다”며 “오바마를 볼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집회 대오 밖에 자리해야 할 때가 많지만, 이들은 “렌즈 뒤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별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임 조합원은 “기왕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기록을 담고 싶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들에게 ‘사진 찍히는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사진팀 조합원은 “기왕 팔뚝질을 하실 거면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해 주세요. 피켓으로 얼굴 너무 가리시지 마시고요”라고 조언했다.

